

얀 후스(Jan Hus)의  
종교개혁운동 고찰

지도 김 영 도 교수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0년 11월 30일

영 남 신 학 대 학 교 신 학 대 학 원

신 학 과 역 사 신 학 전 공

이 종 훈

# 이종훈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주심 \_\_\_\_\_

부심 \_\_\_\_\_

부심 \_\_\_\_\_

영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0년 11월

## 감사의 글

저의 神學 과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저를 지켜봐 주신 고마운 분들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신앙으로 길러 주셨던 김태현 목사님, 신학 과정 기간 동안 교회 봉사의 길을 열어 주셨던 이홍빈 목사님, 사랑과 권면으로 목회의 본을 보여주시는 유원식 목사님의 은덕에 감사드립니다.

본 論文을 작성함에 있어 세심하게 지도해주신 김영도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기도 가운데 용기를 주시며 힘이 되어주시고 끝까지 믿어주신 부모님, 사랑과 기도와 물질을 아끼지 아니해주신 장모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년 동안 내조로 수고한 아내 진숙과 기쁨이 되어준 아들 한결에게 고마움과 사랑을 전합니다.

2000년 11월 30일

이 종 훈

# 목 차

I. 서론	1
A. 문제제기	1
B. 연구방법 및 목적	3
II. 얀 후스(Jan Hus)의 사상형성 배경	5
A. 중세말기의 신비주의 운동	5
B. 묵시문학적 종말론과 후스	6
C. 위클리프의 사상과 후스	9
III. 후스의 개혁운동	13
A. 하나님 말씀의 선포를 통한 개혁운동	13
B. 지식인 의식화 운동을 통한 개혁운동	15
C. 교회와 정치 상황의 중립화운동	18
D. 요한 23세 칙서의 반대와 개혁운동	22
E. 콘스탄츠 공의회와 후스의 재판	26
IV. 후스 이후의 후스파 운동	32
A. 체코 종교개혁의 기본 4개조문과 후스파 운동의 확산	32
B. 후스전쟁과 독립교회(Teilkirche)	36
V. 후스의 개혁운동이 주는 의미와 공헌	40
VI. 결론	43
참고문헌	46

# I. 서 론

## A. 문제 제기

체코의 종교 개혁 전통 가운데는 다른 종교 개혁에서 볼 수 없는 독특성이 있다. 체코의 종교개혁은 14세기에 시작되었고 15세기에 절정에 이른 이른바 역동적인 개혁이었다. 체코의 종교개혁은 루터와 칼빈보다 100년 앞서 후스의 순교적인 죽음과 그의 후예들인 후스파들과 보헤미안 동포단들의 개혁적인 운동과 함께 시작된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개혁 운동을 후스파운동이라고 부르는 것도 체코개혁운동의 핵심적인 인물인 프라하의 학자요, 설교가며, 순교자인 얀 후스와의 관련 때문이다.<sup>1)</sup>

1517년 시작된 루터의 종교 개혁은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의 위계 구조(hierarchy)와 신학적 근거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리게 된다. 그러나 루터의 종교 개혁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운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13세기 부터 진행된 중세의 몰락과 더불어 독일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먼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미 16세기의 종교 개혁의 전조들은 중세 말기에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그 예로 북유럽을 중심한 신비적 경건주의 운동, 영국의 위클리프가 전개한 개혁 운동, 그리고 보헤미아의 후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전개한 후스파 운동이 바로 그것이다.<sup>2)</sup>

후스파 운동은 후스에 의해 시작되어 그의 죽음 이후 16세기까지

---

1) Jan Milic Lochman, 「살아있는 유산」, 김원배, 정미현 편역, (서울: 한국기독교 장로회 신학 연구소, 1997) p. 59.

2) 주재용, 「교황권의 쇠퇴와 교호개혁운동」(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1) p. 172.

지속된 운동으로, 그것이 전개된 과정과 영향은 중세는 물론 근세 이후 그 어떤 운동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격렬하고 장기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루터의 종교개혁과는 달리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은 후스파 운동을 적극적으로 저지한 카톨릭 세력과의 대결에서 패배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스파 운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러하듯이 현상적으로는 실패하였으나 그 의미와 영향은 여러 가지 형태로 16세기 종교 개혁은 물론 이후의 기독교 갱신 운동의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sup>3)</sup> 여기에 후스의 종교개혁의 의의와 중요성이 있다.

후스의 종교개혁을 시발점으로 일어난 후스파 운동에 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은 민족주의적 관점, 맑스주의적 관점, 교회사적 관점이 바로 그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후스파 운동을 종교개혁의 전조로 전제하였듯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지배 아래 있던 보헤미아<sup>4)</sup>라는 사회 구조 속에서 보헤미아 민중들이 일으킨 중세 말기의 종교 개혁운동으로 보고자 한다. 물론 15세기초의 유럽 사회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사회적 비중과 일반 민중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종교개혁 운동은 사회 변혁 운동의 핵심적인 차원을 내포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구태여 중세 말기의 종교개혁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16세기의 종교개혁과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근대 이후 보헤미아인 들은 의식적으로 종교 개혁운동으로서의 후스의 종교개혁운동을 간과하고 대체적으로 민족주의적 관점과 맑스주의적 관점에서 후스의 종교 개혁운동을 이해하려고 한다. 이러한 경향은 공통적으로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적 편향성 때문에 후스 자

---

3) 김승환, “후스파 운동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한신대학 대학원, 1991), p. 2.

4) 오늘날의 체코슬라바키아.

신이 개혁운동을 전개하는데 기반이 된 그의 신앙과 신학, 그리고 후스파 운동의 종교 개혁의 의의를 간과 내지 무시하였다.

오늘날에 이르러 교회는 전세계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고 내부적으로도 많은 갈등을 겪고 있으며, 교회가 선포하는 말씀과 진리의 신뢰성이 파괴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후스가 남긴 여러 기록들과 정신은 논쟁을 즐기기 보다 그의 메시지를 실천에 옮겼고 대안적인 삶을 살았으며 주님의 인격과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임으로 비록 불완전하고 패배를 경험하면서도 가난한 자들의 공동체와 교회를 형성하고자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참되고 진실한 교회의 갱신이ダイナミック한 사회 윤리적이고 사회 비판적인 차원을 가진 운동의 양상을 가지게 되었고 그럼으로 후스가 전개한 그의 운동의 전 과정의 성격은 종교개혁운동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규정지을 수 있고 이러한 역사적인 개혁 운동에 대한 이해를 통해 종교개혁 운동 정신이 오늘날의 전통과 개혁사이에서 생동하는 창조적 역동성과 적용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찾고자 한다.

## B. 연구방법 및 목적

본 논문에서는 교회사적 관점에서 연구한 견해들을 중심으로 후스의 종교개혁운동의 개략을 서술하고자 한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후스에 관한 연구 논문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은 본 논문의 한계를 규정하였다. 그래서 1차 자료가 아닌 2차와 3차 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힌다. 본 논문에서는 본론을 네 부분으로 나누었다.

제Ⅱ장에서는 “안 후스의 사상형성 배경”으로 후스의 정신적 사상적 배경을 살펴봄으로 후스를 중세 말의 다양한 사상적 흐름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제Ⅲ장에서는 “후스의 개혁운동”으로 후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였는가 살펴보고자 한다. 제Ⅳ장에서는 “후스 이후의 후스파 운동”으로 후스의 죽음 이후 후스의 종교개혁운동의 전개과정과 분화 과정을 살펴보고, 제Ⅴ장에서는 “후스의 종교개혁운동이 종교개혁에 미친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16세기 종교 개혁가들은 후스를 어떻게 이해하고 규정하였는지를 살펴보고 마지막 결론으로 본 논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후스의 종교개혁이 제시하는 교회와 사회의 갱신을 촉구하는 종교개혁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 II. 얀 후스(Jan Hus)의 사상형성 배경

### A. 중세말기의 신비주의 운동

신비주의 운동의 등장과 발전은 14세기와 15세기를 기점으로 중세 카톨릭교회의 부패와 분열로 인한 교회 권위의 부재 속에서 새로운 사상적 대안으로 유럽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다<sup>5)</sup>. 수도원과 평신도를 중심으로 전개된 이 운동은 내면적인 신앙생활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과 영혼의 직접적인 교통을 강조하였다.<sup>6)</sup> 특히 라인강 유역에서는 14세기 신비주의를 가르쳤던 스승인 도미니카회의 에크하르트(John Eckhart)와 그의 제자인 타울러(John Tauler), 수소(Henry Suso)가 활동하였다. 라인강 하구에는 루이스부뤼크(John Ruysbroeck)이 공동생활 형제단(the Brethren of the Common Life)을 창설한 그로테(Gerrit de Groote)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sup>7)</sup>. 이들의 운동과 비슷한 운동들이 라인 지방과 기타 지역으로 퍼지면서 “새로운 경건”(devotio moderna)운동을 일으켰는데 <sup>8)</sup>보헤미아 지방 역시 이러한 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추측은 당시 프라하가 보헤미아 왕국의 수도였을 뿐만 아니라, 1346년부터 1400년까지 신성로마제국의 수도였으며, 알프스 산맥 북쪽에서는 대학<sup>9)</sup>이 있는 제일 큰 국제도시였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프

---

5) 임도건, 「종교개혁의 역사와 신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p. 39.

6)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87), p. 8.

7) 김홍기, 「역사신학연구 1」, (서울: 성서연구사, 1996), p.28.

8) 후스토 L 곤잘레스, 「기독교 사상사Ⅱ」 이형기, 차종순 역,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국) p. 397.

라하는 당시 여러 학문과 사상, 운동들이 만나는 장소가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네들란드 출신의 청년 신비주의자로서 새로운 경건 운동의 창시자인 그로테가 1370년에 프라하 대학의 학생으로 이 지역에서 공부하며 머물러 있었으며, 프라하의 왕실과 프라하 대학 안에 이미 이 운동의 추종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14세기 후반기 보헤미아 지방의 문화적 풍토를 형성하는데는 물론이고 후스의 정신세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 틀림없다. 이는 후스가 다양한 국제적 사상과 운동들이 만나는 프라하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그곳에서 교수생활을 하였다는 사실을 추론해 볼 때 그 가능성은 충분한 것이다. 물론 후스의 저작 가운데 이러한 신비주의 운동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하는 증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후스가 프라하 대학에서 공부한 시기가 14세기말이었으므로 그는 프라하 대학에서의 이러한 시대 분위기를 호흡하였을 것이다.<sup>10)</sup> 실제로 후스의 후예들 가운데 내면적 경건과 사도적 청빈을 강조하는 보헤미아 형제단(Unitas Fratrum)이 후스파 운동의 주요한 계승자로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 B. 묵시문학적 종말론과 후스

후스의 개혁운동의 배경이 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상은 묵시문학적 종말론<sup>11)</sup>을 들 수 있다. 중세 시대의 묵시문학적 종말론은 카톨릭 교회의 성례전주의(sacramentalism)와 교회의 부패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 운동은 중세 카톨릭 교회가 원시 기독교의 종말론적 열정

9) 프라하대학은 1348년에 설립되었다.

10) 김승환, p. 8.

11) 김명용, 「현대의 도전과 오늘의 조직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97), p. 110.

을 상실하고 성례전을 통해 은총의 수단을 독점함으로 그리스도 복음의 역동성을 상실하고 세속주의에 물들어 버린 교회에 대한 반작용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운동을 촉발시킨 사상가 피오르 요아힘(Joachim von Fiore, 1131-1202)의 사상적 영향은 후스는 물론 보헤미아 사회 내부의 전통 속에서 14세기초부터 개혁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개혁 운동을 대변하는 보헤미아의 개혁자들로는 크로멜리츠의 밀리치(John Milic of kromeriz), 스티트니(Thomas Stitny), 야노프의 마티아스(Mattias of Janov)등을 들 수 있다<sup>12)</sup>.

보헤미아 지방에서 이러한 묵시 문학적 종말론이 널리 유행하게 된 것은 보헤미아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 14세기 후반기의 보헤미아는 유럽에서 중심적 위치에 있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보헤미아의 왕은 동시에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였으며, 보헤미아의 수도 프라하에는 중부 유럽 최초의 대학인 프라하 대학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은 중부 유럽의 정치적, 문화적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보헤미아가 이러한 지위를 확보하게 된 것은 물론 당시 보헤미아 왕인 칼 4세(Charles IV, 1346-78)의 탁월한 정치적 역량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칼 4세와 아비뇽의 교황 클레멘트6세(Clement VI)의 밀월 관계 때문이기도 했다. 혈통상으로는 합스부르크가가 아니라 룩셈부르크가에 속해 있던 칼 4세의 요한(John of Luxemburg)과 칼 4세는 클레멘트가 교황이 되기 전부터 당시 아비뇽에 거주하고 있던 교황들의 편을 들었다. 이러한 우호관계는 클레멘트가 교황이 된 후 더욱 긴밀해져, 클레멘트는 1344년에 프라하 주교 관구를 대주교관구로 승격시켰고, 1349년에는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칼 4세를 마침내 신성 로마제국 황제로 선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프라하 교회는 이전보다 더 많은 권리와 부를

---

12) Jan Milic Lochman, p. 60.

소유하게 되었다. 당시 보헤미아의 모든 토지 가운데 약 절반을 교구사제들(secular clergy)과 수도원들이 소유하다보니 교회가 누리는 특권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자연히 성직자들의 도덕적 부패를 가져왔다. 그 결과 성직자들의 수준은 저질화 되었고, 이를 이용한 교황청은 많은 돈을 챙길 수 있었기 때문에, 교회 재정이나 인사 문제에 있어서 비리를 누적시키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sup>13)</sup>

이러한 상황 속에서 1360년대에 밀리치라는 금욕적 개혁자가 등장하여 프라하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는 적그리스도(Antichrist)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적그리스도를 개인으로 생각하였으나 나중에는 교회내부의 부패로 규정하였다. 그에게 교회가 명백하게 부패하였다는 사실은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였으며, 그것은 곧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종말을 준비하기 위하여는 적그리스도를 전복시켜야 함을 역설하며, 그것은 성직자들이 다시 청빈한 생활로 돌아가고 평신도들은 고리대금업을 청산하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하였다.<sup>14)</sup>

밀리치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은 그의 제자 마티아스였다. 그는 밀리치보다 훨씬 강렬하게 적그리스도의 압도적인 세력을 감지하였고, 그 증거로 성직자들의 타락과 교회의 분열(the Great Schism)을 경계하였다. 물론 그리스도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준비를 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그러한 준비의 일부는 성서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는 교훈으로 돌아가는 것과 매일 매일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나중에 후스 자신과 후스의 추

---

13) Kamil Krofta, 「Bohemia in the Fourteen Century」 (Cambridge Medieval History, Vol, VII, n.d) pp. 155-182

14) Norman Cohn, The Pursuit of the Millennium, (Oxford univ. Press 1977) pp. 205-206

종자들이 내건 핵심적인 개혁안 가운데 하나가 두요소성만찬(utraquism) 임을 생각할 때 마티아스의 이러한 사상은 큰 의미를 갖는 것이다.<sup>15)</sup>

이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391년 프라하에서 베들레헴 소성당이 건축되었는데, 훗날 이곳은 후스가 개혁운동을 전개하는 중심 무대가 되었다. 그러므로 후스의 활동은 밀리치에서 시작되어 마티아스로 이어져 내려온 보헤미아 내부의 자생적인 개혁운동의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후스의 사상형성배경으로 묵시문학적 종말론을 언급하는 것은 추론의 수준이다. 하지만 역사적 증거가 빈약하다고 해서 묵시문학적 종말론과 후스는 관계가 없다고 말 할 수는 없다. 실제로 후스의 추종자들 가운데는 타보르파들은 묵시문학적 종말론으로 철저히 무장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1420년부터 계속된 후스전쟁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sup>16)</sup> 후스파 운동의 이러한 인적구성과 역사적 전개 과정은 묵시문학적 종말론과 후스를 연관시켜 주는 중요한 근거라고 볼 수 있다.

### C. 위클리프의 사상과 후스

후스에게 큰 영향을 준 사상 중에서 언급 않을 수 없는 것이 영국의 종교 개혁자 존 위클리프의 사상이다<sup>17)</sup>. 후스는 생전에 위클리프주의자라고 불리었으며 그가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화형 당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도 이단자인 위클리프의 사상을 지지하고 퍼뜨렸다는 것 때문이었다. 후스파 운동 초기에만 해도 이들을 부르는 일반적인 명칭은 위클리프파

---

15) Ibid., p. 206.

16) 이부분은 본 논문 IV장을 참조하라.

17) 엘E, 케이른즈, 「세계교회사 1」, 엄성욱 역, (서울: 은성출판사, 1995),

pp. 395-398.

(Wycliffites) 혹은 위클리프주의(Wyciffism)이었고, 이 말 대신 후스파(Hussites)와 혹은 후스주의(Hussitism)란 말이 사용된 것은 후스가 죽은지 훨씬 뒤였다<sup>18)</sup>는 사실은 후스파 운동에 위클리프의 사상이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대변해주는 것이다.

위클리프의 사상이 보헤미아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은 1382년 영국 왕 리처드2세(Richard II)가 보헤미아의 왕 벤체슬라스(Wenceslas)의 누이 안나(Anne)와 결혼한 이후이지만 그 이전에 이미 프라하의 지식인들은 위클리프의 저작을 읽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sup>19)</sup> 1367년 프라하 대학의 철학부는 학생들에게 파리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 박사들의 노트북을 구해 읽도록 하였다. 이때 이들을 통하여 위클리프의 사상이 프라하의 지식인들에게 전해졌으리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1381년 보헤미아의 저명한 신학자 니콜라스 비체프스(Nicholas Biceps)는 위클리프의 중심 사상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일이 있다. 후스는 1411년 영국의 까르멜 수도회 수사 존 스토크스에게 보낸 편지 답장에서 자신과 프라하 대학 사람들이 위클리프의 저작을 소유하고 있고 약 20년 전부터 그것을 읽어왔다고 밝힌바가 있고, 후스 자신이 1398년에 직접 베낀 필사본이 현존하고 있다.<sup>20)</sup>

위클리프의 중심되는 신학 사상은 주권(lordship) 혹은 지배(dominion)사상, 성서론, 교회론, 성만찬론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sup>21)</sup> 그 중에서 후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그의 교회론이다. 사상적

---

18) 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EERDMANS, 1976) p358.

19) 윌리스턴 워커, 「기독교회사, 상」, 송인설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4), p. 429.

20) Ibid., pp. 359-360.

21) 위클리프의 생애와 사상 전반을 알고 싶으면, John Stancey, John Wyclif and Reform, (London: Lutterworth Press 1964)를 참조하라.

경향으로 보면 그는 어거스틴에게 의존하였지만 철저하게 실체론의 입장에서 교회를 정의하였다. 즉 어거스틴은 신자들을 하늘나라에 속한 자와 지상의 나라에 속한 자로 구분을 하면서도, 그들의 궁극적인 운명이 어떠하든지 간에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를 이 세상 교회의 신자로 여긴데 반하여, 위클리프는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를 독립된 실체(substantia)로 보고 선민들만을 교회의 구성원으로 여겼다. 그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저주받은 자들을 미리 알려진 자들(presciti)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교회에서 영원히 제외된 자들로 간주하였다. 위클리프에 따르면 구원받은 자이건, 저주받은 자이건 그들은 존재론적으로(ontologically) 영원히 결정되었다.<sup>22)</sup> 그리하여 그는 교회를 예정된 선민들의 공동체(congregatio predestinatorum)<sup>23)</sup>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누가 선택을 받은 자이고 저주를 받은 자인지는 특별한 계시에 의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 할 때 교황은 물론 가시적 교회의 권위까지 부정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위클리프의 사상이 이단으로 정죄당한 것은 이러한 사상적 급진성 때문이었다.<sup>24)</sup>

후스는 위클리프의 이러한 급진적인 사상을 받아들여 1412년 프라하에서 피신해 있을 동안 유명한 교회론(De Ecclesia)를 집필하였다. 후스 역시 위클리프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모든 예정된 자들의 몸이라고 정의하였으며, 미리 알려진 자들(presciti)을 교회의 구성원에서 영원히 배제하였다. 그는 또한 교황과 추기경을 중심으로 한 당시의 카톨릭 교회의 위계구조와 정당성을 부정하면서,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하였다. 후스가 가톨릭 교회와 교황청의 부패에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후스의

---

22) Tony Lane, 「기독교사상사」, 김웅국 역, (서울: 나침반사, 1992), p. 229.

23) John Wyclif, De Ecclesia, (London, 1886), p. 112.

24) 윌리스턴 위커, p. 430.

정의감뿐 아니라 이러한 교회론적 토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sup>25)</sup>

---

25) Ibid., p. 434.



### Ⅲ. 후스의 개혁운동

#### A. 하나님 말씀의 선포를 통한 개혁운동

후스 종교개혁운동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인 설교라고 할 수 있다. 1400년에 서품을 받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확신하였고, 그 결과 열정적인 설교가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설교의 자유를 위해 교회위계구조에 맞서 싸웠다.<sup>26)</sup> 그는 사제 서품을 받은 지 1년만인 1401년 프라하 구시가의 성 미카엘 성당에서 설교가로 활동하기 시작하였고, 후스가 보헤미아 개혁운동의 중심 인물로 부상하게 된 것은 그가 베들레헴 소성당의 담임 설교자가 된 후에 이 곳을 무대로 전개한 소위 대중설교(Volkessprache)운동을 통해서였다. 대중 설교란 미사와는 상관없이 일반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하여 현지 언어인 체코어로 한 설교를 의미한다. 이러한 설교유형은 이미 1360년 프라하에서 외치며 활동한 오스트리아 출신의 어거스틴 수도회 수도사 발트하우젠의 콘라드(Conrad of waldhausen)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의 영향을 받아 14세기 말기에 활동한 종말론적 설교가들인 밀리치, 마티아스 등을 통해서 후스가 활동하기 수십 년 전에 프라하와 보헤미아의 여러 도시 지역에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1391년 프라하의 부유한

---

26) 후스는 자신의 교회론(De Ecclesia)에서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위클리프의 논제를 변호하였는데, 위클리프는 오류로 판결을 받은 논제14에서, “파문을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설교하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배신자들이다”라고 하였고, 논제15에서는 “사제나 부사제는 교황이나 주교의 허락이 없이도 설교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후스는 위클리프의 이러한 주장을 변호하여, “설교는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두 명의 평신도가 밀리치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프라하에 흔히 베들레헴 소성당으로 부리는 베들레헴 성 이노첸트 소성당을 세운 것을 계기로 대중 설교는 제도교회에 대해 개혁적 메시지를 던지고 평신도 대중의 영적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후스는 1402년 바로 이 베들레헴 소성당의 담임설교자가 됨으로써 본격적으로 개혁운동의 나서게 되었다.<sup>27)</sup>

후스는 베들레헴 소성당에서 10년 동안 무려 3,000회의 설교를 하였다.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 설교의 비중이 약화되었던 일반적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후스의 설교 활동은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후스가 베들레헴 소성당에서 행한 설교의 내용이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대체로 성직자의 부패와 세속성을 비판하고 평신도 대중의 영적, 도덕적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후스는 그보다 앞서 활동한 발트하우젠의 콘라드나 밀리치에 비해 비판의 예리함이나 신비적 깊이에는 부족하였으나 설교의 단순성과 명료성, 그리고 대중의 욕구와 정서를 읽어내어 설교에 반영하는 독창적 능력에 의하여 회중을 사로잡았다. 특히 그는 대중의 의식을 일깨우기 위하여 다른 수단들을 설교와 결합시켰다. 가령, 교회에서의 회중 찬송에 특별히 신경을 써 회중으로 하여금 체코어로 된 옛 찬송가를 부르게 하는가 하면 후스 자신이 직접 새 찬송가를 작곡하기도 하였다. 물론 그 당시에도 예배 밖에도 순례 행렬 때나 설교가 끝난 다음에는 대중적인 찬송가가 불리워지긴 했으나 후스는 베들레헴 소성당에서 이러한 대중적인 찬송가를 예배의 일부로 도입하고 회중으로 그것을 부르게 함으로써 회중을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주체적 참여자로 이끌었다.<sup>28)</sup>

그의 설교는 파장을 일으켜 일반 대중은 물론 프라하의 많은 귀족

---

27) P. Schaff, pp. 360-361.

28) Kamil Krofta, p. 47.

들과 시민들, 그리고 보헤미아의 왕실 사람들까지 후스를 지지하게 되었다. 또한 양심적인 많은 성직자들과 고위 성직자들 중 일부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았다. 그리하여 후스는 두차례나 프라하의 성직자들이 모인 교회회의의 설교자(Synodalprediger)로 임명되었을 뿐 아니라<sup>29)</sup> 프라하 대학의 미사 때에도 설교를 맡게 되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다.<sup>30)</sup> 그뿐 아니라 후스는 1409년 프라하의 지식인들은 물론이고 보헤미아 왕국 전체의 정신적 지도자 중 한 사람인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 되기까지 하였는데, 이러한 요직을 맡음으로써 후스의 설교는 더 큰 과급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요컨대 후스는 대중의 정서를 이해하고 그들의 잠들어 있는 의식을 흔들어 깨우는 예언자적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은 단순히 설교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 주체로 바꾸는 예배의식의 개혁을 통해서 보헤미아 민중의 의식을 높은 수준으로 고양시켰고, 그럼으로써 얼마 후 전개 될 전민족적 규모의 개혁운동을 가능케 하는 대중적 기반 조건을 닦아 놓았던 것이다.

## B. 지식인 의식화 운동을 통한 개혁운동

후스의 중심적인 활동은 베들레헴 소성당을 통한 설교였고, 그것은 밀리치, 마티아스로부터 이어지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테두리를 극복하지 못했다면 후스의 개혁운동은 민족적인 차원으로 확산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후스는 프라하 대학에서 총장직과 교수직을 맡는 등 보헤미아의 유력 인사가 되었고<sup>31)</sup> 그 안에서의 사

29) 1405년, 1407년.

30) 1404년부터.

31) Hus는 프라하 대학에서 문학사(1393), 신학사(1394), 문학석사(1396) 학위를 취득한 뒤로 문학(arts)을 강의하다가, 1401년에는 학장이 되었고, 1409년

상적 조직적 개혁활동을 통해 당시의 지식인들을 의식화시키는데 성공함으로써 자신의 운동을 아래로부터의 운동과 위로부터의 운동이 결합된 전 민족적 개혁운동으로 이끌 수 있었다.

14세기 중엽부터 프라하 대학은 중부유럽 유일의 대학으로서 프랑스의 파리 대학,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과 함께 유럽에서 국제적 대학으로 명성을 날렸다. 바로 이러한 국제적 성격 때문에 프라하 대학은 한편으로는 외부의 개혁적인 사상과 운동이 만나는 곳이 되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베들레헴 소성당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아래로부터의 영적, 도덕적 각성운동과 개혁의 열망에 대해 직접적인 응답을 할 수가 없었다. 엄밀한 의미에서 프라하 대학에서는 14세기에 진보적 사상을 의미하였던 유명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으나 이들은 주로 체코인들과 민족적인 갈등관계에 있는 독일인이었기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운동에 대해 프라하 대학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프라하 대학이 보헤미아 민중의 개혁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과정에서 체코인 교수들과 학생들은 유명론이 아닌 실재론에 근거를 둔 위클리프의 철학과 사상을 지지하게 되었으며, 결국에는 프라하 대학을 체코인 중심의 대학으로 개편함으로써 프라하 대학을 민족적 대학으로 바꾸어 냈다. 후스는 바로 이 두 가지 작업-사상적, 조직적 개편작업을 주도한 것이다.

프라하 대학의 사상적 개혁작업은 두 차례의 논쟁-소위 위클리프 논쟁을 거치면서 진행되었다. 위클리프 사상이 보헤미아에 소개된 후 급속하게 프라하 대학의 석사들 사이에 확산되자, 1403년 초 프라하 대학 참사회는 위클리프의 사상에 관한 견해를 묻기 위해 프라하 대학에 위클리프

---

에는 총장이 되었다. Kamil Krofta, op. cit., p. 46.

의 45개조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논쟁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제1차 위클리프 논쟁이다. 본래 1382년 런던 교회회의는 24개 조항을 정죄하였는데, 프라하 대학의 독일인 석사들 중 한 사람이 위클리프의 저작들 중에 21개를 추가로 뽑아 내어 모두 45개조가 되었다. 이에 대하여 프라하 대학 총장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1403년 5월 28일 전체 대학회의를 소집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완전한 의견의 일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체코인 석사들과 후스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위클리프의 견해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후스의 입장은 그렇게 단호하지는 않았다. 결국 투표에서 체코인 석사들의 견해는 부결되었다. 대학 구성원들의 대다수는 다른 나라의 학사들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누구든 공사석을 불문하고 45개 조항의 어느 항목에 대해서도 지지하거나 변호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였다<sup>32)</sup>.

그러나 프라하 대학의 공식적인 판결에도 불구하고, 체코인 석사들 가운데서는 위클리프의 저작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었고, 그의 교리가 확산되었다. 후스와 후스의 스승인 스타니슬라프(Stanislav of Znojmo), 그리고 후스의 친구인 스테판(Stephen of Palec)은 열성적으로 위클리프의 사상의 정통성을 옹호하였다<sup>33)</sup> 그러자 1408년 5월18일 다시 위클리프의 저작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이 회의에서 두 가지 사항이 결정되었는데 하나는 문학사(bachelor of arts) 학위만을 가진 사람에게는 위클리프의 주요 저작인 Dialogus, Trialogus, De Corpore Christi를 읽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프라하 대학의 어떤 체코인도 위클리프의 사상 중에서 이단적이거나 잘못된 조항에 동의하거나 그것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결의 사항에서 이단적이거나 잘못

---

32) Kamil Krofta, op.cit., p. 49.

33) Ibid., p. 49.

된 이라는 단서가 붙게 된 것은 위클리프의 모든 글이 잘못되었거나 이단적이라는 진술에 동의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견해를 반영한 것인데, 후스는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sup>34)</sup>. 이것이 바로 제2차 위클리프 논쟁이다.

그러나 후스가 본격적으로 위클리프의 사상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은 프라하 대학의 조직 개편 이후였다. 1409년 후스는 벤체슬라스 왕의 쿠트나 호라(Kutna Hora) 칙령<sup>35)</sup>에 의해 프라하 대학이 체코인들에 의해 장악된 뒤 초대 총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다. 그때까지는 유명론적 입장에서 위클리프의 철학과 신학에 거부감을 갖고 있던 독일인들이 프라하 대학을 지배하였지만, 이제부터는 체코인들이 대학의 주도권을 갖게됨에 따라 후스는 이전 보다 더 자유로운 입장에서 과감하게 위클리프의 견해를 옹호하고 전파하게 된 것이다. 이때부터 후스가 쓴 라틴어 저작들은 위클리프의 저작에서 인용한 구절들로 가득차 있다. 요컨대 후스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프라하의 지식인들을 의식화하는데 성공하였는바 그것은 곧 후스의 개혁운동이 아래로부터의 운동뿐 아니라 위로부터의 운동을 포괄하는 전민족적 운동으로 발전하는데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C. 교회와 정치상황의 중립화 운동

---

34) Ibid., p. 50.

35) 당시 프라하 대학에는 체코인, 독일인, 바바리아인, 폴란드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대학의 중요한 정책결정은 이 네 민족의 대표들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따라서 투표로 결정할 때 체코인들은 불리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 벤체슬라스 왕은 자신이 머물고 있던 Kutna Hora에서 칙령을 반포했는데, 그 내용은 체코인들에게는 세 명의 총대를 허용한 반면 다른 민족들에게는 각각 한 명의 총대만을 허용하였다는 것이다.

후스가 전개한 개혁운동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정치적 중립화 운동이다. 정치적 중립화 운동이란 로마 교황과 아비뇽 교황 중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자는 운동인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14세기 말부터 15세기 초까지의 교회의 상황과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여야 한다.

14세기에 들어와 쇠퇴의 길로 접어든 교황권은 1378년 로마와 아비뇽에 각각 교황이 존재하는 소위 대분열(the Great Schism)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 시기는 그 이전부터 심화되기 시작한 교황권의 부패가 절정에 달한 기간이었다. 두 교황은 서로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하여 유럽 각국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쟁탈전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쓸데없이 전쟁을 부추기며 사치와 낭비를 일삼았다<sup>36)</sup>. 그리고 그에 대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직매매를 가일층 성행시켰다. 이러한 상황을 청산하기 위하여 1408년 양측 추기경들이 모여, 장차 피사 공의회를 통하여 결정적인 통합방안을 마련할 때까지는 모든 세속 군주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 통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달라는 촉구를 하였다. 이것이 바로 공의회 운동의 시작이었다<sup>37)</sup>.

한편 보헤미아 왕국은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직을 겸직하던 칼 4세가 죽은 뒤에 정치적으로 수석 선제후로서의 위상을 상실하고 중부 유럽의 헤게모니를 독일에게 빼앗겼으며, 교회적으로는 로마 교황청과 아비뇽 교황청이 대립하여 있는 상황에서 로마측에 종속되었다. 그리하여 보헤미아의 막대한 돈이 로마 교황청으로 흘러 들어갔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

36) 임고건, p. 38.

37) 공의회 운동의 배경과 그 과정에 관해서는 아우구스트 프란츠, 「교회사」, 최석우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82), pp. 255-272. : 유스토 L 곤잘레스, 「중세교회사」, 서영일 역, (서울: 은성출판사, 1990), pp. 198-203.

공의회 운동이 시작되어 보헤미아의 벤체슬라스 왕에게도 중립을 지켜달라는 요청이 오게 되었다. 이에 벤체슬라스 왕과 귀족들은 지지 입장을 표명했으나 대주교 즈비네크를 비롯한 고위성직자들은 로마 교황 그레고리 12세에 대한 지지 입장을 철회하려고 하지 않았다. 대주교의 반대를 제압하기 위해 왕은 프라하 대학측에 중립 문제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도록 요청하였는데, 이때 왕은 공의회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추기경들의 시도에 찬성하고 있는 체코인 석사들의 주도로 프라하 대학의 총의가 중립을 지지해 주리라고 내심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대학회의에서 체코인 석사들만이 왕의 입장을 지지하였고, 나머지 세 나라의 석사들은 반대하였다. 다만, 총장은 왕의 입장과 반대되는 결론이 나오자 공식적인 결론을 유보한 채 회의를 종결시켰다. 그러나 체코인 석사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후스는 일반 평신도들과 성직자들에게 중립을 지지하는 내용의 설교를 하였을 뿐 아니라 유력 인사들을 설득하여 중립을 지지하도록 이끌었다. 이것이 바로 중립화 운동이다<sup>38)</sup>.

이에 대해 즈비네크 대주교는 프라하 대학의 모든 석사들, 특히 후스에게 프라하 교구 안에서 일체의 사제직무를 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후스와 그의 지지자들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 여론을 확산시켜 나갔고, 벤체슬라스 왕은 후스의 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하였다. 체코인들은 중립화 정책을 지지하는데 반해 독일인들이 주도하는 세 나라는 중립화에 반대한다는 것을 왕은 알았기 때문에 만약 체코인들에 결정권이 주어진다면 대학회의 결정은 자신에게 당연히 유리하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총대권 규정 개정이었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것이 바로 쿠틀나 호라 칙령이었는데, 이에 관해서는 이미 2장2절에 언급한 바 있다<sup>39)</sup>.

---

38) Kamil Krofta, op.cit., pp. 51-52



쿠트나 호라 칙령 이후 왕은 모든 백성들, 특히 성직자들에게 교황 그레고리 12세의 명령을 따르지 말도록 명령하였다. 후스와 그의 지지자들은 왕의 명령을 따랐으나, 즈비네크 대주교를 비롯한 고위 성직자들, 상당수의 일반 성직자들은 그것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체코의 성직자들은 후스를 지지하는 파와 대주교를 지지하는 파로 분열되었다. 이 두 파의 대립은 1409년 사순절에 표면화되었다. 즈비네크 대주교는 후스와 그의 지지자들 중 몇 사람을 파문에 처하였다.

후스파는 파문에도 불구하고 사제직을 수행하였고, 특히 설교를 계속하였다. 그러자 대주교는 프라하와 인근 지역에 대해 성사금지령(interdict)을 내렸다. 그러나 후스파는 이 명령 역시 무시하였고, 왕의 지원을 등에 업고 중립화 운동을 전개하여 나갔다. 그러는 가운데 1409년 피사 공의회(Council of Pisa)에서 기존의 두 교황을 폐위시키고 새 교황인 알렉산더 5세를 선출하였다. 그렇게 되자 즈비네크 대주교와 그의 지지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레고리 12세에 대한 지지 입장을 철회하고 새 교황을 지지하게 되었다.<sup>40)</sup>

중립화 운동은 후스의 개혁운동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후스는 비록 성직자들에 대한 비판적인 설교를 인하여 그들 상당수로부터 적대시되긴 하였지만 아직 그들과 대결관계에 서지는 않았다. 그러나 중립화 운동을 계기로 후스는 즈비네크 대주교로 상징되는 수구세력과 정면 대결의 입장에 서게 된 것이다.

#### D. 요한 23세 칙서의 반대와 개혁운동

---

39) Ibid, p. 52.

40) Ibid. p. 53.

후스의 중립화 운동은 당시 교회의 대분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던 공의회 운동(Conciliar Movement)을 지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이 운동의 첫 성과라고 할 수 있는 피사 공의회는 교회의 분열을 해결하기는 커녕, 이전의 두 교황들이 공의회의 결정을 부인하고 나섬에 따라 결과적으로 세명의 교황이 존재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빚게 되었다<sup>41)</sup>. 알렉산더 5세는 선출된 지 채 1년도 못되어 사망하자 추기경들은 요한23세를 새 교황으로 선출하였는데, 이 사람은 자신이 정치적 분쟁에 휘말려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가 교회의 분열을 해결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인물이었다. 그는 특히 후스의 활동에 대해 알렉산더 5세와 똑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즉 알렉산더 5세는 즈비네크 대주교의 일방적인 고발을 그대로 믿고 위클리프의 저술들을 압수하여 불태우도록 하는 한편, 오직 성당과 교구 교회들 그리고 수도원에서만 설교를 하도록 명령하였는데, 요한 23세 역시 그러한 조치를 지속시켰던 것이다. 당시 후스의 설교 무대였던 베들레헴 성당은 이러한 범주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교황의 이 칙령은 실질적으로 후스의 침묵을 명령한 것이었다. 그러나 후스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계속 설교를 강행하였다. 그는 결국 1410년 불복종 혐의로 로마로 소환되었다. 그는 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1411년 파문 당하였다. 하지만 그는 보헤미아 국왕들과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었으므로 교황의 조처는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sup>42)</sup>

이러한 가운데 후스는 피사측 교황청에 점점 과경한 입장을 갖게 되었다. 즉 그는 자격없는 교황에게는 복종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는 피사측 교황들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았으나, 교

---

41) R. TUDUR JONES, 「기독교 개혁사」, 김재영 역, (서울: 나침반사, 1992), p. 12.

42) 유스토 L, 곤잘레스, pp. 198-200.

황이 교회의 복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익을 위해 행동할 때에도 과연 교황으로서의 권위를 계속 지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그러면서 그는 성서만이 교황을 포함한 모든 신자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궁극적 권위이므로, 성서에 순종하지 않는 교황에게는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sup>43)</sup>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후스의 입장은 아직은 교황청에 대해 정면 대결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그런데 1411년 요한 23세가 그레고리 12세의 지지자인 나폴리의 라디슬라스를 무력으로 굴복시키기 위해 십자군을 소집하면서, 십자군에 직접 참여하거나 기부금을 내는 사람에게는 면죄부를 발급하겠다고 약속하자, 후스는 이 일을 계기로 교황청에 정면대결의 입장을 취하였다. 위클리프의 저작에서 십자군 소집의 부당성을 공감한 후스는 종교 전쟁을 비난하고, 그것과 관련한 교황의 면죄부 발행권을 부정하였다. 그는 베들레헴 소성당에서 계속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는 설교를 하였으며, 공개토론을 통하여 죄의 용서는 오직 회개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교황은 세속적인 칼을 잡을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한 말 중의 많은 구절들은 위클리프의 교회론과 사죄론에서 인용한 것이다.<sup>44)</sup>

여론은 전폭적으로 후스의 편이었다. 발트슈타인 볼크(Wolk of Waldstein)의 지휘 아래 군중들은 십자군 소집과 면죄부에 관한 요한23세의 칙서를 매춘부의 옷을 걸친 두 명의 학생 목에 걸게 하고 그들을 수레에 태워 길놀이를 한 다음 공개적으로 불에 태웠다. 그러나 사태가 이처럼 과격하게 치달자 이탈자도 적지 않게 생겼다. 후스의 옛 친구들인 즈니암의 슈타니슬라우스(Stanislaus)와 스테판 팔레츠(Stephen Paletz)는 후스에

---

43) Ibid., p. 209.

44) P.Schaff, pp. 364-365.

게 등을 돌렸다. 그리고 교황 요한23세의 도움을 필요로 하던 벤체슬라스 왕은 1412년 7월11일, 교황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교황의 칙서를 불태운 사건에 가담한 청년 세 사람을 처형하였다. 그러나 분노한 군중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프라하 대학의 석사와 학사, 재학생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프라하 시민들은 찬송가를 부르며 시체를 베들레헴 소성당으로 운구하고 그곳에서 그들을 순교자로 장례지냈다.<sup>45)</sup>

사태가 이처럼 적대적 국면으로 치닫자, 프라하 대학의 교수들 중 후스를 지지하지 않는 신학부 교수들은 이전에 정죄한 위클리프의 45개 조항을 다시 정죄하였고, 후스의 공개적인 발언 중에서 6가지를 꼬집어 내어 추가로 정죄하였다. 그 여섯 가지 중 두 가지는 설교에 관한 것이었다.<sup>46)</sup> 교황청은 후스에 대해 이전에 내렸던 것보다 더욱 강력한 파문을 내렸다. 즉 교황청은 후스를 이단자로 규정하고, 그를 체포하여 대주교에게 교회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였으며, 베들레헴 소성당을 파괴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프라하 대학의 학생들과 군중들은 후스가 체포된 것을 막았다. 프라하 시는 다시 성사금지에 처해졌다. 후스는 교황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렸다. 그뿐 아니라, 공의회의 행동은 언제나 불확실하고 늦다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법정에서 올바른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교황이 악마로부터 받은 특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였다.<sup>47)</sup>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후스는 당초 공의회 운동이 시작될 때, 이 운동에 큰 기대를 걸고 열성적으로 중립화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그때와 비교할 때 지금은 공의회에 대한 입장이 상당히 달라졌다는 점이다. 어떤 면에서 후스는 공의회 운동의 성취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으로 선회

---

45) Ibid., p. 365.

46) Ibid., p. 365.

47) Ibid., p. 366.

한 것처럼 보인다. 물론, 나중에 그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하여 콘스탄츠 공의회에 참석하였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아직 공의회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이 무렵 후스는 십자군 소집과 면죄부 판매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공의회 운동의 성과와 그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면죄부 판매 반대운동으로 인하여 프라하의 여론이 두 달래로 갈라지고, 두 진영의 적대관계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벤체슬라스 왕은 상황을 진정 시키기 위하여 후스에게 프라하 밖으로 피신하라고 권고하였다. 후스는 왕의 권고에 따랐다. 후스가 이 권고를 따른 것은 첫째 당시 자신을 측면에서 지원해주던 왕의 권위를 존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자신으로 인하여 내려진 성사금지령 때문에 여러 가지 영적 권리를 박탈당한 프라하 민중에 대한 연민 때문이었다.

후스는 프라하를 떠나서도 쉬지 않고 설교와 저술 활동을 하였다.<sup>48)</sup>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고 세속 영주들은 그의 신변을 보호해주었다.<sup>49)</sup> 이들이 후스를 보호한 것은 당시 카톨릭 교회가 막대한 양의 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그들의 반카톨릭적 감정과 후스의 저항운동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들의 도움으로 후스는 오히려 베들레헴 서성당이나 프라하 대학에서보다도 더 많은 군중들을 상대로 옥외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이때 쓴 글에서 설교를 성직자의 마땅한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교황이나 대주교의 명령을 따라 설교를 중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이 기간에 베들레헴 서성당, 프라하 대학, 프라하 교

---

48) 이 기간에 유명한 「De Ecclesia」가 라틴어로 씌어졌다.

49) P. Schaff. p. 366.

회회의 등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여기서 그는 풍부하게 성서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 자신도 범죄자처럼 파문 당하고 십자가형을 받으셨다고 기록하였다. 비록 성도들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모범과 그가 주시는 구원만으로도 자신은 충분히 위로와 용기를 얻고 있으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파들, 그리고 빌라도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죽음에 내주었으나, 그는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자기 대신 12명의 설교가들을 주셨다고 주장하였다. 후스는 또한 이렇게 말하였다. “그 어떤 두려움, 혹은 어떤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갈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재산, 친구, 세상의 영애, 우리의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진정 우리가 잃는 것이 있는가? 약하게 사는 것보다 견하게 죽는 편이 낫다. 우리는 죽음의 형벌을 피하기 위해 죄를 지을 수는 없다. 은혜안에서 현세의 사람을 끝내는 것은 비참한 상태에서 추방되는 것이다. 진리는 최후의 승리자다. 죽임당하는 자가 승리한다. 사악함이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면 어떤 역경도 그를 해치지 못하기 때문이다”.<sup>50)</sup>

후스의 이러한 고백과 지금까지 언급한 일련의 사건전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진면목을 발견한다. 그는 성서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신앙에 입각하여 교회의 참된 개혁을 외치면서 그것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흔쾌히 감수하려 한 신앙의 개척자였다.

## E. 콘스탄츠 공의회와 후스의 재판

콘스탄츠 공의회(Council of Constance, 1414-1418)<sup>51)</sup>, 이 공의회

---

50) Ibid., p. 367.

51) 윌리스턴 워커, p. 440.

는 본래 피사 공의회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종식되지 않는 교회의 분열상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지기스문트의 요청에 의한 요한23세가 동의함으로써 소집되었다. 그런데 이 회의의 소집자중 한 사람인 지기스문트는 이 회의에서 후스 문제를 다룰 것을 요청하였다. 지기스문트는 자신의 형인 벤체슬라스 왕이 자식이 없이 죽었던 관계로 보헤미아의 왕위 계승권자가 되었으므로 보헤미아가 이단 시비의 혼란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바랬기 때문이다.<sup>52)</sup> 그리하여 콘스탄츠 공의회가 다룰 의제가 다음 세 가지로 상정되었다: 분열의 종식, 위클리프와 후스의 오류로부터 교회의 보호, 교회의 개혁.

후스는 프라하 시 밖의 은신처에서 지기스문트 황제가 그를 초청하여 공회의 석상에서 그의 입장을 변호토록 했을 뿐 아니라 황제가 직접 후스의 안전통행권(safe conduct)을 보장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꺼이 그것을 수락하였다<sup>53)</sup>. 이 공의회는 사상 최대의 인원이 참석하는 회의였을 뿐 아니라,<sup>54)</sup> 당시로서는 교회개혁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인식되고 있었으므로 후스는 이 초청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이다.

후스는 마침내 1411년 10월11일 길을 떠나 11월3일 콘스탄츠에 도착했다. 교황은 후스에게 시내에서 자유롭게 통행하되, 미사는 집전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후스는 교황의 지시를 무시하고 자기 숙소에서 매일 미사를 집전하였다. 이에 격분한 추기경들은 황제의 약속과는 달리 후스를 체포하여 12월6일 도미니크회의 수도원에 감금하였다. 이에 대해 지기

52) Kamil Krofta, p. 57.

53) SIDNEY M, HOUGHTON, 「기독교 교회사」, (서울: 나침반사, 1997),

p. 120.

54) 인원이 가장 많았을 때, 총대주교3명, 추기경29명, 대주교33명, 주교150명, 수도원장100여명, 본당신부와 참사회장 약50명, 박사 약300명 등 모두 약750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스문트는 처음에는 항의하였으나, 다이이(D,Ailly)를 비롯한 추기경들의 눈치를 살피며 기회주의적인 입장으로 일관하였다. 한편 추기경들은 잘못을 비난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그 잘못을 묵인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지기스문트에게 후스의 이단시비 같은 사소한 문제로 교회개혁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그르치지 말라고 설득하였던 것이다<sup>55)</sup>. 사실 앞서 말한 것처럼 콘스탄츠 공의회 의제가 3가지로 정해지기는 했지만, 제대로 다루어진 것은 첫 번째 것뿐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특별한 주목을 끌지 못한 채 미미한 사건으로 처리되었는데, 후스에 대한 추기경들의 이러한 태도는 콘스탄츠 공의회 성격과 한계를 명백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콘스탄츠 공의회는 당시 서방 세계의 정치적 통합에만 관심을 두었지 아래로부터의 개혁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더구나 교황 혹은 공의회를 정점으로 하는 교회위계구조에 도전하는 어떤 사상에 대해서도 지극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후스는 감방에서 3개월 동안 생활을 해야만 했다. 다른 의제에 밀려 그에 대한 심리가 계속 연기되었기 때문이다. 1415년 3월 다이이를 위원장으로 하는 이단문제 위원회가 후스를 심리하였으나 그것은 곧바로 중단되었다. 그 이유는 교황 요한23세가 콘스탄츠에서 주도하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혼란을 틈타 탈출할 것을 우려한 공의회측은 콘스탄츠 주교의 저택인 고틀리벤으로 후스를 이감시켰다. 후스는 3월24일부터 6월5일까지 이곳에 갇혀 있다가, 다시 프란체스코회에 감금되었다. 한편 이곳에서 추기경, 대주교, 주교, 신학자들이 모인 가운데 공개 청문회가 열렸다. 이단 심리위원회는 후스의 저서에서 30가지의 교리를 이단으로 기소하였다. 그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의 7가지이다.

1. 교회의 구성원은 전적으로 “예정된 사람들(Praedestinati)만으로

---

55) P.Schuff. p. 374.



이루어져 있다.

2.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일 뿐이다. 전투적 교회가 가시적 머리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그리스도가 그러한 머리를 정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입증될 수 없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3. 교황제도는 황제의 호의와 권위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4. 교인들이 교회에 복종해야 한다는 말은 단순히 성직자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성서와는 위배된다.

5. 성직자의 양심이 자신의 동기의 순수성과 올바름을 증거 한다면 그는 교황의 금지명령이나 파문선언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해야 한다.

6. 그 어떤 세속적 혹은 영적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일지라도 양심이 그가 중죄를 범했음을 증거 한다면, 바로 그 순간 그는 그리스도들에 대한 모든 권한을 상실하며, 따라서 그는 자신의 직무를 중지해야 한다.

7. 성서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유일한 원천이며 법규이다.

후스는 이러한 명제들이 자신의 저술임을 인정하였으나, 그것들을 이단으로 해석하는 이단문제 위원회의 견해를 반박하고, 자신의 입장은 정통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자신이 주장했다고 하는 소위 이단조항들 중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확신하였다.

이 무렵, 콘스탄츠 공의회는 후스 사건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한 문제의 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었다. 그것은 두요소성만찬(communion in both kinds; utraquism)문제였다. 이 의식은 후스가 프라하에서 떠나기 전 혹은 직후에 그의 추종자들이 시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향후 보헤미아의 종교개혁운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이 혁신적인 의식을 맨 처음 시작한 사람은 후스의 친구이자 오른 팔이었던 미사의 야코벨루스(Jacobellus de Misa)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성만찬을 자주 시행 할 것을

강조한 마티아스의 저작을 연구한 뒤에 평신도도 사제와 똑같이 포도주를 마실 권리가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후스는 야코벨루스의 견해에 명백하게 동의 하면서도, 콘스탄츠로 떠나가기 전에 그에게 이 문제에 관한 논쟁을 유보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그가 없는 사이에 그의 추종자들 가운데서 논쟁이 격화되어 분열의 위기에까지 이르게 되자 후스는 콘스탄츠에 도착한 직후에 쓴 편지를 통해 이 의식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sup>56)</sup> 그런데 1415년 6월15일 콘스탄츠 공의회는 이것을 금지하였다. 후스는 공의회 의 이러한 조치를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베들레헴 소성당을 담임하고 있던 하플리크에 쓴 편지에서, 두요소성만찬을 계속 시행하라고 촉구하였다. 그는 이 편지에서 공의회 금지 조치는 공의회도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하면서, 스위스인들 사이에서 떠돌던 콘스탄츠에서 공의회가 저지른 죄를 씻으려면 한 세대이상 걸릴 것이다 라는 말을 인용했다.<sup>57)</sup> 후스는 보헤미아에서 중립화 운동을 전개 할 때 공의회 운동에 대해 큰 기대를 걸었고, 또 콘스탄츠 공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보헤미아에서 떠나올 때만 해도 이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결코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이제 자신에 대한 재판 앞둔 시점에서는 공의회 권위에 대해 명백하게 도전하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그리하여 후스는 1415년 7월6일, 콘스탄츠 대성당으로 끌려갔고, 그곳에 모인 공의회 석상에서 최종판결을 받았다. 판결은 사형이었다. 이유는 후스가 위클리프의 이단사상을 그의 저서에서 “신조화하고, 변호하고, 설교한” 때문이다.<sup>58)</sup> 같은 날, 그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장작 무더기 위에서 불타고 있는 자신의 저서들을 볼 수 있었다. 그가 기둥에 묶였을 때 그에게 다시 한번 철회의 기회가 주어졌으나 그는 거부하였다. 그리고 그는 큰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예

56) Kamil Krofta, p. 60.

57) P.Schaff, p. 379.

58) 아우그스토 프란쯔, p. 269.

수님, 바로 당신을 위하여 이처럼 잔인한 죽음을 아무런 불평없이 감당합니다. 부디 나의 적들에게 자비를 내려주소서.”<sup>59)</sup>

후스는 마침내 화형에 처해졌다. 참으로 아이러니칼한 것은 교회의 일치와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소집된 역사적인 콘스탄츠 공의회가 판결에 의해서 한 의로운 개혁자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다. 공의회는 후스 문제를 너무도 안일하게 다루었다. 소수의 추기경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이 사건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하였고,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공의회가 이 경솔한 행동은 엄청난 비극을 불러왔다. 바로 이 사건이 원인이 되어 11년에 걸쳐 보헤미아와 독일을 불안과 공포로 몰고 간 후스 전쟁<sup>60)</sup>이 발발한 것이다.

---

59) 유스토 L. 곤잘레스, p. 212.

60) 1420-1431.

## IV. 후스 이후의 후스파 운동

### A. 체코 종교개혁의 기본 4개 조문과

#### 후스파 운동의 확산

후스의 죽음을 계기로 보헤미아 국민들은 후스를 민족적인 영웅이자 순교자로 여기게 되었다. 후스가 없는 동안 국내외의 탄압에 의해 위축되었던 후스파 운동은 후스의 죽음을 계기로 오히려 전민족적인 저항운동으로 발전하였다. 1415년 9월2일 열린 보헤미아 국회에서는 452명의 귀족들이 모여 공의회에 부당한 처사를 규탄하는 공동항의문을 작성하고 이에 서명하였다. 그리고 3일 뒤, 그들은 동맹을 결성하고 다음과 같은 강령을 채택하였다. (1) 콘스탄츠 공의회에 칙령을 인정하지 않는다. (2)하나님의 뜻과 그의 율법에 모순되지 않는 문제들에 있어서만 새로 선출된 교황에게 복종한다. (3)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보헤미아의 주교들에게 복종하되,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행동 할 때에만 그렇게 한다. (4)성직자들이 잘못을 범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로이 설교 할 수 있어야 하며, 성직자들의 잘못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판단은 주교들이 아니라 프라하 대학이 한다.<sup>61)</sup>프라하 대학도 얼마 후 후스의 무죄를 주장하는 서한을 각국으로 보냈다.<sup>62)</sup>이러한 사실들 속에서 사상 최초로, 그것도 루터가 교황청에 반기를 들기 이미 100년 전에 특정 민족 전체가 교황과 공의회로 상징되는 카톨릭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현실을 확인하게 된다.

---

61) Kamil Krofta, p. 66.

62) P.Schaff, p. 393.

그러나 콘스탄츠 공의회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1416년 2월 이 항의문에 서명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의회에 참석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하였다. 콘스탄츠 공의회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보헤미아 종교 개혁운동의 또 다른 지도자인 프라하 대학의 제롬을 이단으로 몰아, 1416년 5월30일에 화형에 처하였다. 그리고 프라하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기능을 무기한 정지시키는 칙령을 발표하였다. 그뿐 아니라, 프라하 대주교 콘라드(Conrad of Vechta)에게 압력을 넣어 후스파 사람들에게는 사제 서품을 주지 말고 성록을 신청하는 모든 성직자들에게 두요소성만찬을 포기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러한 강압적 조치들은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하여, 실제로 후스주으자로 자처하여 두요소성만찬을 집전한 성직자들 중 일부가 사제직을 박탈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직자들은 공의회에 지시에 불복하였다. 후스파 귀족 혹은 왕실의 후원을 받는 교회들의 경우는 만약 두요소성만찬을 집전하기를 거부하거나 공의회에 대한 충성을 고집하면 해고되었다. 후스파 귀족의 지도자인 체네크(Cenek of Vatenberk)는 사제서품 제한 조치로 인해 생긴 성직자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프라하 부주교 한 사람을 설득하여 프라하 대주교가 부여한 조건들을 무시하고 성직자 후보들에게 사제서품을 주도록 하였다.<sup>63)</sup>

이처럼 보헤미아 교회가 독자성을 견지하면서 민족교회(national church)로 개혁을 거듭해가는 동안, 두요소성만찬은 후스의 운동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의 연대하게 했으며 성찬배는 후스파의 보편적 상징으로 채택되었다. 이것은 후스파 운동의 역사적 성격과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암시한다. 본래 성찬식은 그리스도와 맺는 계약의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는 역동적인 의식이었으나, 중세 카톨릭 교회에 와서는 교회가 의전주의

---

63) Ibid., p. 67.

(sacramentalism)에 빠지면서 성찬식은 교회가 은총을 독점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전락함으로 초대 교회의 역동성을 상실하였다. 중세 의전주의의 폐해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바로 평신도들에게 성찬배를 들지 못하게 하는 한요소성만찬이었다. 그러므로 중세 말기는 평신도 대중의 일반적인 영적 갈증에 세속 군주들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 운동이 결합되면서, 교황청을 정점으로 하는 교회위계구조에 저항하는 광범위한 개혁 세력의 종교적 상징으로 두요소성만찬이 보편화되지 않았나 추론한다. 다시 말해서 후스파 운동이 전개될 당시 중세 사회의 기본적인 모순은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로마 카톨릭 교회와 그로부터 소외된 개혁적 성직자 및 세속 영주들 사이의 모순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두요소성만찬은,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온건하게 보이지만 이러한 개혁세력들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요 그리스도와 맺은 계약의 주체라는 것을 집단적으로 표현한 종교적 자기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초기 후스 개혁운동의 역사적 성격과 한계를 동시에 나타내주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후스파 내부에서는 개혁의 방향을 놓고 분파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가령, 어떤 사람들은 서원, 중죄, 연옥설, 죽은 자를 위한 기도와 미사, 성유물과 성상에 대한 숭배들을 공격하였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관행을 금지하였다. 이들은 주로 프라하에서 남쪽으로 60마일 가량 떨어진 타보르산에 집단 거주촌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보르파 라고 불리웠다. 주로 농민들과 하위 신사 계급 출신 사람들로 구성된 타보르파 사람들은 이러한 종교적 개혁 외에도 보다 근본적인 사회개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온건파 사람들은 이러한 급진적인 견해들을 비판하였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금지하는 관행만을 금지하였고, 두요소성만찬, 설교의 자유, 사도적 청빈, 엄격한 성직생활, 그중에서도 특히 우트라퀴즘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우트라크파

(Utraquists)라고 불렀다.<sup>64</sup>) 그리고 이들은 타보르파의 사회개혁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여러 가지 급진적 흐름들을 제어하고 후스파 내부의 구심점을 형성하기 위하여 강령을 채택하였는데 이것이 프라하 4개조(Four Articles of Prague)이다. 이것이 공포된 것은 1420년이지만 사실은 1417년 8월 교회대표들이 모여서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합의된 것이다. 그 내용은 이러하였다.

(1)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제약 없이 선포되어야 한다.

(2) 모든 신자들에게 두요소성만찬이 베풀어져야 한다.

(3) 사제와 수사들이 세속적 재산들에 행사하는 지배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4) 성직자들이 중죄를 범하였을 때 그들은 마땅히 세속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sup>65</sup>)

이 프라하 4개 조문은 대체로 우트라크파의 주요 구성원인 온건한 성직자들과 귀족들, 그리고 시민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내용들이다. 즉 이 조문들은 아직까지 운동의 주도세력이 개혁적 성직자들과 세속 위정자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였다. 신성로마제국 황제 지기스문트와 새로 선출된 교황 마르틴 5세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력에 굴복하여, 벤체슬라스 왕은 개혁 정책을 포기하고 반동화하여 후스파를 위협시키고 그들의 운동을 탄압하였다. 심지어 후스파의 적대자들을 앓혔다. 그러자 프라하 시민들은 수사 출신의 열성적인 후스주의자 요한 젤리프스키의 주도 아래 1419년 7월 30일에 대규모 폭동을 일으켰다. 그들은 거리에서 시위를 하다가 시청에 진입하여 새로 임명된 시의원들을 창문 아래로 던졌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자연히 급진파의 입지가 강화되

---

64) Kamil Krofta, p. 67.

65) Jan Milic Lochman, pp. 66-70.

었다. 사실, 후스파 운동은 처음부터 귀족들이나 프라하 대학 석사들보다 훨씬 급진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대부분 하층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7월30일 폭동을 계기로 후스파 운동은 민중 봉기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에 충격을 받아 벤체슬라스 왕은 1419년 8월16일 죽고 말았다.

벤체슬라스 왕이 죽자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벤체슬라스 왕이 죽음으로써 법적으로 보헤미아 왕국의 계승권자가 된 지기스문트 황제는 보헤미아인들로부터 왕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자,<sup>66)</sup>1420년 봄 새 교황 마르틴 5세를 충동질하여 십자군을 소집하게 하고 자신이 직접 십자군을 이끌고 보헤미아를 침공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후스 전쟁의 시작이었다.

## B. 후스전쟁과 독립교회(Teilkirche)

지기스문트가 전쟁을 선포하자, 보헤미아 교회는 딜레마에 빠졌다. 십자군에 대한 저항은 필연적으로 폭력을 수반하게 될 것인데, 과연 폭력을 어떻게 정당화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다. 이 때문에 성직자들은 대체로 온건한 입장을 견지하여 폭력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타보르파를 중심으로 하는 급진파는 입장을 달리하였다. 그들은 천년왕국 사상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악의 세력을 멸절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폭력을 정당화하였다. 이러한 견해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420년

---

66) 당시 보헤미아인들은 콘스탄츠에서 후스를 저버린 지기스문트 황제를 불신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프라하 4개조문을 인정하고 예배의 자유를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독일인들을 일체의 공직에 임명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지기스문트는 거부하였다. 유스토 L. 곤잘레스. p 214.



봄 프라하 대학 석사들이 모임을 가졌는데, 최종 결론으로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마지막 수단으로만 폭력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바, 그러한 경우란 권력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진리에 위배되어 모든 자격을 상실한 때라고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십자군에 대한 항전을 정당화하였다.<sup>67)</sup>

후스전쟁은 1420년부터 1431년까지 계속되었다. 물론 중간에 휴전 기간은 있었으나, 이 11년 동안 보헤미아인들과 십자군은 처절한 싸움을 하였다. 십자군은 1420년, 1421년, 1427년, 1431년 모두 4차례 소집되었다. 이 전쟁은 종교적 이단자들을 진압한다는 차원에서 교황에 의해 십자군의 이름으로 미화되었으나,<sup>68)</sup> 그 배후에는 자신의 정치적 헤게모니를 관철하려는 신성로마제국 황제 지기스문트의 야심도 들어 있었다. 보헤미아인들은 부당한 침략에 맞서 싸우는 이 전쟁을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한 성전(Holy War)으로 여겼으며<sup>69)</sup> 지기스문트를 목시록에 나오는 용이라고 부르며 결연히 항전하였다.<sup>70)</sup> 반면, 보헤미아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전사들(Ye Warriors of God)이라고 부르면서 십자군의 침략을 번번히 격퇴하였다.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전쟁 과정에서 후스파 운동은 사상적인 면에서나 제도적인 면에서나 큰 변화를 겪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비록 후스의 죽음으로 공의회측과 관계가 악화되어 보헤미아 교회가 민족교회의 성격을 띠면서 독자성을 주장하기는 했지만, 당시의 상황을 주도한 세력이 주로 귀족들을 중심으로 하는 온건한 세력이었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인 관계의 단절에까지는 이르지 않았고, 보헤미아 교회가 공식적으로 내건 개혁안은 프라하 4개조문의 수준이었다. 그러자 전쟁이 일어나자 상

---

67) Kamil Krofta, p. 71.

68) 윌리스턴 워커, p. 328.

69) Ibid, p. 72.

70) P.Schaff, p. 393.

황은 달라졌다. 이제 상황의 주도권은 급진파에게 넘어갔고, 이들의 주도하에 보헤미아 교회는 분열의 길을 걸어갔다. 물론 전쟁이 계속되는 중간의에도 온건파들은 카톨릭 교회와의 타협을 모색하였으나, 보헤미아 교회가 이처럼 독립교회의 노선을 걷게 된 데는 외부로부터 유입된 급진적인 사상들의 영향도 컸다. 그러한 사상으로는 왈도파(Waldensians)와 카타르파(Catharists), 그리고 피키르파(Picards)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사상적 강조점은 약간씩 다르지만 대체로 사제, 집사, 주교 이외의 직제를 인정하지 않았고, 전통적인 사도적 계승에 관계 없이도 사제들의 합으로 주교를 선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졌다. 실제로 타보르파는 1420년 가을에 이미 독자적으로 주교를 선출하였는데, 이는 카톨릭 교회로부터의 단절을 상징하는 명백한 증거였다.<sup>71)</sup>

그러나 이러한 단절과 분리의 길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는 없었다. 장기간에 걸친 전쟁으로 보헤미아인들의 생활은 피폐할 대로 피폐하였다. 그런 가운데 자연히 온건파인 우트라크파가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연합군측도 반복되는 패배로 인해 병사들이 사기를 잃었을 뿐 아니라 전쟁이 다른 나라로 파급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소집된 것이 바젤 공의회였다. 콘스탄츠 공의회는 새 교황을 선출하고 분열되었던 교회를 통합하는데는 성공을 거두었으나 후스를 경솔하게 처형함으로써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 결과로 발생한 후스 전쟁은 유럽 전체가 10년이 넘도록 전쟁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마침내 1431년 1월, 교황 마르틴 5세는 바젤 공의회를 소집하였다. 바젤 공의회에서 보헤미아인들은 프라하 4개조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공의회 측은 두요소성만찬에 대해서만 약간의 융통성을 보였을 뿐 나머지 세 가지는 거부하였다. 그러면서 보헤미아인들

---

71) Kamil Krofta, pp. 76-78.

이 공의회는 권위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협상을 실패를 거듭하게 되고, 양측은 비공식 접촉을 통해서 마침내 4개 조문을 공의회가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도출하는데 성공한다. 이 협정은 보헤미아 국회와 지기스문트 모두로부터 인준을 받음으로서 마침내 지나간 후스전쟁이 끝나게 되었고, 이후 이 협정은 보헤미아인들의 준자율적인 민족교회와 소수파인 로마 카톨릭 교회가 공존하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sup>72)</sup>

---

72) Ibid, pp. 80-83.

## V. 후스의 개혁운동이 주는 의미와 공헌

후스개혁운동이 주는 의미와 공헌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전통적인 로마카톨릭 교회의 역사편찬사료의 관점에 의하면 후스와 그의 지지자들은 전형적인 중세의 이단자들로 규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후스운동이 지향했던 신학적 강조점을 과소 평가하는 것이며, 전통적인 역사 연구라는 입장에서도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개신교 영역 안에서는 종교개혁이라는 용어가 루터, 멜랑히톤, 쾰링글리, 녹스와 같은 이름들과 관련된 가운데서 16세기 운동에 국한되고 있다.<sup>73)</sup> 이런 관점은 종교개혁의 진정한 요구를 간과하고 한정시켜 버린다. 무엇이 참된 종교개혁인가 하는 것을 측정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 성서로만(*sola scriptura*)이라는 성서의 절대적인 권위라고 하는 교리에서의 형식적인 원칙과 믿음으로만(*sola fide*)으로부터 오는 의인화를 강조하는 실재적인 원칙이 그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동의하는 수준에서 종교개혁 또는 초기종교개혁으로 분류되고 있다.<sup>74)</sup> 한편 넓은 의미에서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들이 당면하는 새로운 상황에 대하여 고전적인 종교개혁이 주는 새로운 의미 부여는 끊임없는 개혁(*semper refomanda*)의 원칙을 견지하게 한다. 이러한 원칙 속에서 후스와 그의 지지자들은 종교개혁의 바른 이해를 제공하며 생동감 넘치는 교회일치적 신학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그같은 개혁운동들을 이미 결정된 기준의 바탕 위에서 선구자의 역할 정도로 규정하는 것도 조심해야한다. 종교개혁은 이미 발텐저와 후스 교도들과 함께 일어나고 있었다. 많은 체코의 신학자들은 수 십년에 걸쳐 프라하 출신 교회사가 아메네오 몰나(Ameno Molnar)가 주장한 것에 근거

73) Jan Milic Lochman, p. 73.

74) Ibid, p. 73.

하여 두 종교개혁 운동에 대해서 말함으로 이 사실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 하려고 노력하여 왔다.<sup>75)</sup> 첫 번째 종교개혁을 말할 때는 발덴저와 후스의 종교개혁을 지칭한다. 그에 따르면 두 번째 종교개혁은 16세기 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전개된 종교개혁운동이다. 그가 이렇게 구분한 것은 지위와 우선권을 어디에 두느냐 문제도 아니었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종교개혁 사이의 거리를 만들자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종교개혁 정의의 규격화와 축소화, 율법주의적 경향성을 넘어서자는 것이었다.<sup>76)</sup> 이 같은 개념화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즉 종교개혁 개념의 율법주의적 남용에 문제를 제기하고 성서적으로 이해된 종교개혁적인 사고의 역동적인 성격을 지적하고 더 나아가 두 종교개혁들 사이의 대화를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은 두 번째 종교개혁과 비교하여 볼 때 독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16세기 종교개혁과도 긴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그 예로 루터는 분명하게 후스와 그의 개혁운동에 대하여 연대성을 부정하지 않는다<sup>77)</sup>. 그러나 이 같은 연대성에도 불구하고 후스의 개혁운동은 그만의 고유하고 독특성을 가진다. 그것은 교회의 기원인 뿌리로 돌아가 본래의 사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정이었고 그 열정이 과격한 갱신이라는 특성을 가질 수가 있었다. 이 같은 경향은 강제적인 제자직에 대한 호소로서, 지배적인 성서의 권위에 대한 관련성과 더불어 그들의 신학 선언 속에 반복해서 나타난다. 이런 사도직에 대한 열정이 중세 후기교회의 재구성과 갱신을 희망하고 추구하였다. 그럼으로 그들은 사도적 기원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실천을 강조하였고 이 같은 실천적 측면을 법과 행동이라는 두 가지를 끊임없이 추구하였던 것이다.

---

75) Ibid., p. 75.

76) Ibid., p. 76.

77) Ibid., p. 76.

이들의 신학을 보면 두 번째 종교개혁이 바울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면, 첫 번째 종교개혁은 예수의 복음적인 계명에 집중을 한다. 이들에게는 예수에 대한 관계가 교회와 사회의 비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후스와 그의 정신을 이은 자들은 단순히 논쟁을 즐기지 않았고 차라리 그들의 메시지를 실천에 옮겼고 대안적인 삶을 살았고 주님의 인격과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임으로 비록 불완전하고 패배를 경험하였음에도 바른 교회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과정 가운데서 참되고 진실한 교회의 갱신은 다이나믹한 사회 윤리적이고 사회 비판적인 차원을 가진 첫 번째 종교개혁의 의미를 간과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특별히 후스주의자들은 교회와 사회의 제도적인 삶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개인적인 삶 자체와 교회의 실천에 적용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 VI. 결 론

후스의 개혁운동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타락과 분열이 극에 달해 있던 중세 말기에 후스와 후스의 지지자들이 전개한 종교개혁운동이었다. 물론 이 때는 16세기의 종교개혁과는 구별되는 중세적 의미의 종교개혁이다.

중세의 교회는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었는데, 교회의 분열로 인하여 중세사회를 떠받치고 있던 통일적 권위가 붕괴된 것이 첫 번째 위기이며, 교회가 청빈의 미덕을 버리고 사회의 부를 독점할 뿐 아니라 도덕성까지 잃어버린 것이 두 번째 위기이며, 성직자들이 은혜의 수단을 독점하고 오용함으로써 생긴 영성의 위기가 그 세 번째 위기였다. 후스의 개혁운동은 이러한 삼중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이었다.

실제로 후스가 활동하기 시작한 15세기 초 보헤미아 교회의 상황은 다른 지역보다 위기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분열 이전부터 교황 청과의 결탁으로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보헤미아 민중의 원성의 대상이 되던 보헤미아의 교회는 대분열 이후에도 로마교황청에 종속되어 추악한 해게모니 쟁탈전의 노리개가 되었을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더욱 세속화되었으며 은혜의 수단인 성만찬과 설교를 독점함으로써 일반 평신도들을 소외시키고 그들의 영적 갈증을 심화시켰다. 후스는 이러한 삼중적 위기에 대해 무엇보다도 베들레헴 소성당을 중심으로 한 대중설교와 프라하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식인 의식화 운동을 통하여 도덕적 각성운동을 일으켰다. 그후 교회의 대분열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정치적 중립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면죄부 판매 반대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용되는 것을 막으려 하였고 두요소성만찬 운동을 지원하고 예전을 개혁함으로 대중의 영적 갈증을 해소하려 하였다.

그러나 비극적인 상황이 그에게 다가오는데 후스는 일치와 개혁을 표방하던 콘스탄츠 공의회에 의해 화형에 처해진다. 이것은 공의회 운동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공의회 운동은 교황청의 연합과 행정개혁에만 관심을 가질 뿐 진정한 교회의 개혁에는 접근하지 못하였다. 실제로 16세기의 종교개혁자 루터도 개혁운동 초기에는 공의회 운동에 기대를 걸었지만 나중에 비판적으로 돌아선다. 그러나 루터의 종교개혁운동보다 약 100년 전에 후스는 공의회 운동의 역사적 한계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후스의 죽음 이후 10년이 넘도록 전개된 후스 전쟁과 그 이후의 과정은 중세적 질서를 복원하려는 마지막 시도인 공의회 운동이 실패하고 새로운 생활양식과 사회질서를 창출하려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이 시도된 기간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보다 약100년 전에 이미 후스는 종교개혁의 중심원리들을 비록 단초적인 형태로나마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후스는 성서의 말씀과 설교의 자유를 위해 싸우고 대중설교운동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였고, 면죄부 판매 반대 운동과정에서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밝혔다. 그뿐 아니라 후스의 개혁운동을 통하여 16세기 종교개혁의 예시되어진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후스의 개혁운동은 16세기 종교개혁의 전조라고 볼 수도 있다.

오늘의 교회는 이미 개혁되었고, 종교개혁을 거쳤으며 종교개혁정신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교회이다. 그럼에도 오늘의 교회가 지향해야 할 이상은 개혁된 교회만이 아니라 항상 개혁되어야 하는 교회이다. 후스, 루터, 칼빈, 쾰링거 등은 교회라는 구조 속에 매몰되어 버린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과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개혁의 깃발을 올렸다. 그러므로 개혁교회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오늘의 교회는 종교개혁의 완결되지 않은 위탁을 잘 수행하기 위해 늘 새롭게 개혁이라는 말의 의미하는 바를 숙고하며, 갱신의 길을 찾고 걸을 때 종교개혁은 더욱 전승되고 발전될 것이다.

## 참고 문헌

- Cohn, Norman, *The Pursuit of the Millennium*,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 Schaff, Philp,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6.
- John Wyclif, *De Ecclesies*, London, 1886.
- Kamil Krofta, *Bohemia in the Fourteen Century*, Cambridge Medieval History, Vol, VII.
- Jan Milic Lochman, 「살아있는 유산」, 김원배, 정미현 역, 서울: 한국기독교 신학 연구소, 1997.
- 후스토 L 곤잘레스, 「기독교사상사Ⅱ」, 이형기, 차종순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 후스토 L 곤잘레스, 「중세교회사」, 서영일 역, 서울: 은성출판사, 1990.
- 윌리스턴 워크, 「기독교회사, 상」, 송인설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4.
- 토니 레인, 「기독교사상사」, 김용국 역, 서울: 나침반사, 1992.
- 아우구스토 프란츠, 「교회사」, 최석우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82.
- Sidney M. Houghton, 「기독교교회사」, 정중은 역, 서울: 나침반사, 1997.
- R. Tudur Jones, 「기독교개혁사」, 김재영 역, 서울: 나침반사, 1992.
- 얼E, 케이른즈, 「세계교회사 1」, 엄성옥 역, 서울: 은성출판사, 1995.

김홍기, 「역사신학연구 1」, 서울: 성서연구사, 1996.

주재용, 「교황권의 쇠퇴와 교회개혁운동」,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1.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87.

김명용, 「현대의 도전과 오늘의 조직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임도건, 「종교개혁의 역사와 신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김승환, “후스파운동에 관한 연구”, 미간행석사학위 논문, 한국신학대학교 대학원, 1991.